• IR/PR •

이셀피아 이전

인터넷 경매기업 이셀피아(대표 윤봉)가 지난 2일 본사를 논현동 한컴벤처타워로 이전했다.

이셀피아는 지난 1999년 창업 이래 인터넷 경매사업에만 매진하여 내실을 기하는 사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현재 국내 2위의 인터넷 경매사업자로 도약했다.

이셀피아는 국내 대부분의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네트워크 파트너사로 영입하여 거대네트워크 마켓시장을 형성, 이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거래는 물론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에서도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실현하여 건전한 경매 문화 정착과 저렴한 수수료의 부과와 등록비 무료제, 안전거래서비스, 공정거래서비스등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직적 시장과 수평적 시장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시장, 기업자재성소모품시장(MRO)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셀피아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 상거래 영역에서 정보와 자원의 효율적인 교환과 분배를 위한 차세대 솔루션 분야까지 이셀피아의 네트워크 모델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다산네트웍스, KT 이더넷 장비 공급

다산네트웍스(대표 남민우)가 'KT'메트로 이더넷 xDSL 소형 스위치' 입찰에서 최종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다산네트웍스는 메트로 이더넷 소형 가입자용 스위치인 'V5124' 장비 1100대를 다음달까지 KT에 공급하게 된다. 다산네트웍스가 수주한 총 공급규모는 8억원. 다산네트웍스 관계자는 "KT 등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메트로 이더넷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연말까지 총매출 가운데 약 60% 이상을 KT와 하나로통신에 대한 메트로 이더넷 스위치 장비 공급을 통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다산네트웍스는 최근 KT 등이 주력하고 있는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장비 시장 참여를 위해 신 모델 장비를 개발했다.

▲ V5124 장비

북아일랜드 경제사절단, 휴맥스 방문

북아일랜드 산업개발 레슬리 모리슨 청장을 비롯한 북아일랜드 경제사절단이 휴맥스 연구소를 방문했다.

모리슨 청장은 휴맥스의 김장용 부사장과 만나 휴맥스의 북아일랜드 현지공장 운영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절단은 이날 대우전자와 셋톱박스업체 ADT 등 북아일랜드 투자 기업들도 방문했다.

▲ 북아일랜드 경제사절단 휴맥스 방문

아이에이시큐리티, XML 암호 툴킷 개발

안철수연구소 관계사인 유무선 보안솔루션기업 아이에이시큐리티(대표 안철수)는 최근 XML 서명 및 암호화 툴킷인 'XML세이퍼'를 개발 완료해 XML 보안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됐다.

XML 서명 및 암호는 XML 문서 유통 시, 중요 정보의 암호화와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해 기존 SSL(Secure Socket Layer) 솔루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단대단(End to End) 보안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암호화와 전자서명을 XML 데이터 처리기법에 따라 처리하여 XML 응용 개발자가 손쉽게 암호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국내외 소수 업체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에 이시큐리티의 'XMLSafer'는 동종 툴킷 가운데 선두 그룹에 속한다.

또한 'XMLSafer'는 W3C와 IETF의 표준을 준수하고 국내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한 한편 공인 인증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C 언어 기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 'XMLSafer-C'와 자바 기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 'XMLSafer -J'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